

# 닭고기 소비량이 9년간에 12배로

<뉴질랜드>

뉴질랜드국민의 닭고기 소비량이 9년동안에 12배가 되었다. 즉 1955년에는 1인당 겨우 1/2kg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6kg가 되었다. 1966년 이래 닭고기였던 민치肉의 가격이 kg당 55센트이던 것이 최근에는 1弗 50센트로 130%가 비싸졌는데 반해 닭고기는 1966년의 kg당 1.4弗 겨우 15% 오른 1.67弗에 불과하기 때문에 뉴질랜드국민에게 닭고기가 많이 찾는 고기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 축산진흥 추진으로 곡물수요 더욱증대

<소련>

세계적인 풍작을 예상하는 금년도 소련의 곡물 구매량은 지난 7월 22일까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1,500만톤을 포함하여 약 2,500만톤을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미국보다 넓은 경지면적과 약 9배의 농업인구를 가지고 있는 소련은 1인당 생산량 1/9.6, 에이커당 수확량 1/2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렇게 농업생산성이 미국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요인들은 기후조건, 비능률적 경영방식, 노동력과 농기구 부족, 보관 수송시설 빈약, 기술요원 및 비료부족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서방측 전문가들은 기후조건은 일부요인에 지나지 않으며 영농방법, 기술등의 여러면에서 미국이나 서유럽 제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낙후성은 후루시초프 전수상의 실각을 몰고올 정도의 심각한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은 70년 7월 축산물 생산을 5년내에 30%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74년도의 소련 국민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은 미국인 소비량의 40%정도였으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2천년이 되어야 미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작지의 대부분이 집단농장이나 국영농장의 소유로 되어있어 농민들의 증산의욕 저하시키고 농민의 월평균 소득액이 공장노동자보다 훨씬적어 농업노동력의 부족사태까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낙후요인 제거에 박차를 가하지만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국민 식생활 향상을 위해 축산업을 적극 진흥시킬 계획인데, 축산업이 확대되면 곡물수요가 급증하여 농업정책의 실효를 거둔다 해도 곡물수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료용 단백질 생산

<필리핀>

—일본 미시비시, 연(年) 4만톤 규모 합작사모색—

일본의 미시비시 상사는 동구 향가리에서 개발된 식물성단백 추출기술을 이용, 연내에 필리핀

에서 합작기업을 설립, 사료용 단백을 생산할 계획이다. 일본 농산공업, 일본식품가공의 협력을 얻어 실험생산을 서두르고 있으며 현지기업을 물색하고 있는데, 당초 연산(年産) 3~4만톤 규모의 생산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동남아를 비롯 세계각지에서 무한으로 산재하고 있는 풀(草)에서 단백질을 생산함으로써 사료부족을 해소시킨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기술은 향가리의 부다케스트 공대에서 개발한 것으로 이미 이나라는 3천톤 규모의 시험생산을 개시하고 있으며 재산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시비시상사는 부다케스트의 특허공단과 기술원조계약을 체결 2년전부터 기업화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오일쇼크의 영향을 받아 일시 중단되었다. 그 후 필리핀의 파라완도에 5만평방미터의 농지를 확보, 각종 풀을 시험해 왔는데 거의 기업화에 매듭이 지어졌다 한다. 이 기술의 특징은 대두의 경우 ha당 0.7톤의 단백을 생산하는데 비해 풀은 7톤이상으로 높다는 것이며 자원개발면에서는 매우 유용하다고 한다. <내외경제에서>

# 계란과 콜레스테롤

<세계가금학회지에서>



동맥경화증이나 심장병에 걸리는 것은 식물중에 함유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이 原因이라고 그릇되게 소개되어 왔다.

계란은 탄식품에 比하여 콜레스테롤이 많기때문에 위의병과 關連하여 생각한다면 소비가 위축되기 마련이다. 미국은 한해 年間一人當 消費량이 400개에 달

했었으나 近間 약 300개 정도로 줄어들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要因이 있겠지만 콜레스테롤 有害說도 全혀 무시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今後 계란의 소비증대를 위하여는 계란을 이용한 料理의 開發普及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증이나 심장병과는 無關하다는 것을 우리 生産者들 스스로가 알고 소비자에게 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轉載하는 글은 世界家禽學會誌, 1975年 5月號에 刊登大學 名譽教授인 존, 유-트킨 博士가 發表한 論文을 抄譯한 것으로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증이나 심장병의 主要原因이 되지않는다고 斷言하고 있다.

裕福한 국민일 수록 심장병이 많이發生하고 있다.

裕福한 나라에는 車가 많고 사람마다 담배를 많이 태우고 其他 골것거리가 많아 스트레스트 많이 받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肉류, 버터, 아이스크림 등의 脂肪이 많이 含有된 食物이나 케-익, 菓子, 소프트드링크, 아이스크림等 雪糖이 많이 含有된 食物을 또한 많이먹는다.

왜 심장병에 걸리는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각지역의 個人을 알아보고, 심장병에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을 比較하여 어떠한 差點이 있는가가 調査되었는데 이結果 血液中 콜레스테롤 濃度가 높은사람이 심장병에 걸리기 쉽다는 見解가 나왔다.

이 見解를 자세히 說明하면 콜레스테롤 또는 동물성脂肪을 많이 먹으면 血液中的 콜레스테롤 濃度가 높아지며 血液中的 콜레스테롤은 동맥의 内部에 沈着物을 만들어 動脈硬化症이라고 불리는 狀

態가 된다. 動脈은 좁아(狹)져서 운동이나 흥분될 때 보통보다 많은量의 血液을 보내야 하는 要求가 생기면 심장이 필요로하는 血液이 不足하여 狹心症으로 알려진 증상 卽 가슴에 아픔을 일으키게 된다. 또 內壁에 沈着物이 있는 좁은 動脈에서 血塊가 생기기 쉬워서 심장의 動脈內에 血塊가 생기면 심장 活動에 必要的인 血液공급이 어떻게 된다. 그러다가는 심장의 拍動이 停止되어 죽게 된다거나 심장조직의 일부가 파괴되게된다”는 것이다.

이說에 對하여 反論이 提示되고 있다. 約 60年前 실험에서 동물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含有된 모이를 먹은 토끼의 血液中 콜레스테롤量이 增加하고 사람의 동맥경화증과 같은 症狀를 나타내어 동맥에 沈着物을 增加시켰다. 그런데 약 15년전까지만 해도 血液中的 다른物質의 측정이 困難하였고 콜레스테롤量밖에 조사할 수가 없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血液 콜레스테롤量이 많은 사람은 콜레스테롤이나 동물성지방을 많이먹는 사람이며, 콜레스테롤이나 동물성지방을 많이먹는 사람은 심장병에 걸리기쉽다는 것이 證明되고 있지않다.

血液中 콜레스테롤은 동물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먹는사람이나 거의먹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하다는 것이다. 콜레스테롤이 高濃度蓄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에 걸리지않고 있는 사람이 많은가하면, 콜레스테롤量이 적음에도 심장병에 걸린사람도 있어 콜레스테롤은 심장병의 發病을 決定하는 중요한 要因이 될 수는없다. 더욱 심장병을 앓는 사람은 콜레스테롤의 高蓄積이 付隨하는 症狀이 아닌 다른異常이 많은데, 糖尿病, 痛風, 十二脂腸 괴양等은 심장병을 앓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당뇨병을 앓는 사람은 심장병에 걸려있으며, 심장병을 갖고있는 사람은 적어도(거의 모두가) 가벼운 당뇨병에 걸려있다. 以上으로 토끼에서 나타난 동맥경화증과 사람의 동맥경화증과는 전혀다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령 계란을 매일 多量먹음으로써 血液中콜레스테롤量이 증가하고 심장병의 발병이되는 것을 認定한다 하더라도 毛病(위에서 記述한 等等)을 隨

<다음 페이지 계속>

### <전 페이지에서 계속>

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장병과 심장병에 걸리는 사람의 異常한 多樣性으로 미루어 심장은 糞穢平衡阻害로 因한, 例를 든다면 인슈린의 分泌過多부터惹起되지 않나하고 생각된다.

인슈린의 分泌過多는 血液中콜레스테롤 量의 增加를 일으킬 수도 있고 減을 수도 있다. 數年前에 약 4,000명의 血液中 콜레스테롤量과 트리클세리트를 알아본 調査에 依하면 血液中 콜레스테롤量이 增加하더라도 血液中 트리클세리트量이 낮으면 심장병은 생기지 않는다. 이에 따른다면 오히려 트리클세리트가 심장병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또 에스키모一人은 미국인과 같은 정도의 혈액중 콜레스테롤量을 갖고 있다.

에스키모一人은 많은지방을 먹기때문에 혈액중 콜레스테롤量이 증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거의 심장병에 걸리지 않는다. 아마 혈액중 트리클세리트濃도가 낮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날은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實驗들이 實施되고 있지만 아직은 심장병의 발병을 방지할 수는 없다. 이는 지금까지 食物中の 脂肪과 콜레스테롤에 지나치게 比重을 둔때문이다. 食物가운데서 重要한 것은 계란의 數가 아니다. 계란은 혈액중 콜레스테롤 量을 변화시킬뿐이지, 重要한 것은 혈액중 트리클세리트 量을 결정짓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이와 관계되는 것은 설탕의 量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트리클세리트 量이 심장병의 原因이라고 斷定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다. 原因은 여러가지 卽 喫煙, 運動不足, 설탕의 多量섭취等도 一因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심장병에 관한 한 계란은 얼마를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다.



## 채란 부로일러 모두 호조예상

### <미 국>

美國의 가끔산업관계자는 근간 경제정세등의 관점으로보아 1975년의 양계업계는 好調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美國飼料工場協會가 후원자가 되어 設置한 家禽畜產調査委員會가 公表한 資料에 依한 展望의 概要이다.

뉴욕의 계란도매가격은 1974년 4월부터 12개월간 타(打)當 59센트이며 이는 前年同期보다 3% 上昇한 것이다. 1975년 1~6월의 채란제입식은 前年同期보다 1% 減했다.

부로일러는 今年 4~6월의 鶏肉價格은 kg當 95센트로써 前年同期보다 15~16센트 上昇이다. 7~9월에도 94~95센트의 시세가 예견되며 이도 前年同期에 비해 11센트 높은 것이다.

더욱이 부로일러의 出廻도 前年보다 적게 돌고있다. 七面鳥도 今年엔 1억1,800만수가 생산될 것인데 이것은 前年보다 10% 減한 것이기때문 價格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美國과같이 75年은 安定

### <캐나다>

1974년의 採卵鶏首數는 2,700만首, 계란생산량은 前年の 7% 많은 5억타 였었다. 今年前半의 계란생산량은 국내수요를 약간 上廻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입식수수는 근래는 좀 줄어들고 있으며 1975년의 난가는 견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卽 채란제수수는 1974년부터 줄기시작하여 금년에도 쪼들었다. 6월에는 2,

230만수가 된것으로 보고있으며 한편입추에 있어서도 5월 이후는 前년에 比하여 약 10%줄고 있다. 그리고 채란계는 강제환우를시켜 장기산란을 시키는 양계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금년의 특징이다.

산란율은 평균 62.5%로보며 首當 個수로 19打(228個)가 되므로 1~6월의 산란량은 2억 4,400만打로 推定된다. 연간으로는 4억 8,100만打가 될 것이며 이는 캐나다 국민 1人當 계란소비량을 19.4打(232.8個)로 할 것이다.

캐나다의 난가는 美國난가와 관련이 있어 큰영향을 주는데 금년의 미국이 안정세이므로 캐나다도 같은 경향일 것으로 보인다. 부로일러의 입식도 근래는 줄어 들고 있다. 따라서 생산도 줄 것이며, 금년 前半에는 9,000만수가 되는데 前年の 8%減이다. 부로일러 肉가격은 안정세이다.